



Analyst 윤혁진 · 02-3773-9025 · hjyoon2019@sks.co.kr

연구원 이소중 · 02-3773-9953 · sojoong@sks.co.kr

Issue Comment

- ✓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확대 시 국내 돈육가격 추가상승 예상
- ✓ 양돈, 양계 사업 영위중인 국내 업체들 수혜 입을 것으로 판단
- ✓ 중국 돼지고기 9월 가격은 전년대비 약 50% 상승

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발생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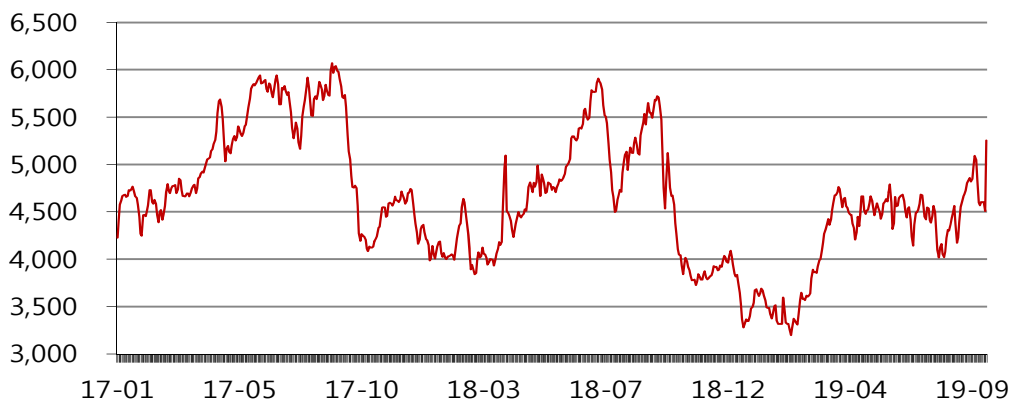
- 2019년 5월 30일, 북한 돼지열병 첫 발병 소식
- 2019년 9월 16일,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접수했고, 9월 17일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공식 발표함
- 2019년 9월 18일,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진
-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 최고 수준인 '심각' 단계로 격상

국내 돈육가격은 공급과잉으로 부진했지만, ASF 확대에 따라 국내 돈육가격 상승 예상

- 9월 17일 오후 3시, 14개 주요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고기 평균 경매가는 6,062 원/kg으로 전날보다 32.9% 급등
-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정도가 심각할 경우, 돼지 공급 부족으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. 원종돈(씨 돼지)에서 비육돈(소비자용)까지 기르는데 약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 차질이 해소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. 2011년 구제역으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4~5,000 원/kg대에서 8,000 원/kg까지 상승했던 바가 있음

국내 돈육 대표가격 추이

(단위: 원)



주: 2019년 9월 18일 오후 4시 기준: 5,254 원

자료: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, SK 증권

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발생 및 진행현황

- 2018년 8월, 중국 랴오닝성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병
- 2019년 5월, 발병 9개월만에 중국 31개 성 직할시, 자치구에 모두 번진 것으로 확인
- 최근 9월초에 중부북의 닝샤 회족 자치구에서 추가 발병 보고로 확산은 진행 중
- 매물 처분되는 돼지 수 증가로 돼지고기 출하량이 줄어들고, 돼지열병 확산 우려로 새끼 돼지를 키우는 농가 감소로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돼지고기 9월 가격은 전년대비 약 50% 상승했음
- 매물 처분 및 축산시설을 외부와 차단하는 대책 외에 중국 정부는 가격 안정 보조금을 지급해서 가격의 급등을 막고, 생산을 늘리기 위해 양돈농가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음

중국의 대표적인 돈육업체 Wen's Food Group

(단위 : 달러)



주 : 9월 17일 종가 기준

자료 : 블룸버그, SK 증권

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국내 관련주

국내 돼지 관련 상장기업

상장 기업	주요 주주	매출 비중 (1H19)	Comment
우리손에프앤지	이지바이오 43.8%, 팜스토리 8.1%	비육돈 49.0%, 가공유통사업 19.2%, 해외사업 17.6%	- 국내 돈가 상승으로 양돈사업부문 수익성 개선 전망
팜스토리	이지바이오 등 50.8%	배합사료 59.9%, 육가공 30.0%, 가금사업 9.4%	- 국내 돈가 상승으로 양돈사업부문 수익성 개선 전망
이지바이오	최대주주 등 30.5%	우리손에프앤지, 팜스토리, 마니커의 지주사로 일부 자체사업 영위	- 국내 돈가 상승에 따른 양돈 농장 가격 상승으로 계열화 속도 늦어질 전망 - 자회사 상장(정다운, 우리손에프앤지, 옵티팜)으로 부채비율 2H19부터 감소 - PB 사업부문 적자 축소(정다운 통합완료)
팜스코	하림지주 56.3%, 국민연금공단 6.9%, 신영자산 7.4%, 국민은행 5.5%	배합사료 62.7%, 돈육 24.8% 등	- 국내 돈가 상승으로 양돈사업부문 수익성 개선 전망 - 국내 돈가 상승에 따른 양돈 농장 가격 상승으로 계열화 속도 늦어질 전망 - 육돈업 전 밸류체인 사업 영위 (사료 - 계열(양돈) - 신선육 - 육가공)
선진	하림지주 50.0%, 한국밸류투자자산 18.5%, 피델리티 10.0%	배합사료 39.4%, 식육사업 30.7%, 양돈사업 16.8%, 육가공사업 12.3%	- 국내 돈가 상승으로 양돈사업부문 수익성 개선 전망 - 해외 베트남 법인 실적 2019년 하반기부터 반영 - 양돈계열화 농장 수 증가로 사료 사업부문의 외형성장 예상

자료 : SK 증권 정리

국내 육계 관련 상장기업

상장 기업	주요 주주	매출 비중 (1H19)	Comment
하림	하림지주 47.9%	육계 74.4%, 육가공 16.4%, 사료 5.6%	돼지에 대한 대체 수요로 육계의 가격과 판매량 증가 예상돼 단기실적 개선 요인 하지만 육계 생산주기는 비교적 짧아서 가격 상승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
마니커	이지바이오 32.8%, 씨제이제일제당 10.3%, 팜스토리 6.6%	통닭 48.6%, 부분육 27.4%, 염장육 18.0%	
체리부로	최대주주 등 71.8%	육계 83.0%, 사료 8.4%, 병아리 3.6%	
푸드나루	최대주주 등 74.3%	닭가슴살 80.0%	육계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기대

자료 : SK 증권 정리

국내 백신 관련 상장기업

상장 기업	비고
체시스	구제역 방역 특허 보유
대성미생물	대성 단열 피그백 (돼지열병 및 돼지 단독 예방백신) 보유
이지바이오	동물약품 개발 및 판매
이글벳	돼지열병 방역 소독제 판매
우진비엔지	돼지열병과 관련해 방역제 임상 진행 중
중앙백신	양돈백신과 축우백신, 애견백신등의 백신사업 영위

자료 : SK 증권 정리

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개요

- 아프리카돼지열병(ASF, African Swine Fever)은 바이러스성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풍토병
- 유럽의 경우 1960 년대에 처음 발생해 질병을 근절하는데 30 년 이상이 소요됨
-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
- 바이러스는 냉동육에서 수년간 생존 가능하고 가열 건조된 이후에도 수주~수개월까지 생존한다고 함. 숙주 밖에서도 장시일 생존해 농장/가구/의복/가축 사료 등의 오염으로 전파가 가능
-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(눈물/침/분변)에 의해 직접 전파되며 치사율이 100%, 개발이 완료된 백신/치료제가 없음